



# Contents

2023 DECEMBER | VOL.2

## 기획 + 생활안전\_보이스피싱



### 전문가기고

- 04**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금전 요구시 진위여부 확인, 그리고 예방 및 대응  
박재풍\_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경찰패널연구센터 센터장
- 10**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의 활성화 방안  
임창호\_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대전보이스피싱

- 14**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감소하지만...' 규모화·조직화·공공기관 사칭 특징  
김민영\_작가

## 기획 + 생활안전\_보이스피싱



### 대전시 인터뷰

- 18** 국적, 직업, 성별까지 바꾸는 '로맨스 스캠'  
박미량\_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20** 보이스피싱 범죄, 아직 순번이 되지 않았을 뿐!  
이수희\_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 22** AI 보이스피싱 차단기술 '씩다잡아' 플랫폼 개발  
강필상\_㈜필상 대표
- 24** 메신저/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대처방법

## DAJEON SAFETY NEWS



### Daejeon Safety News

- 26** 대전시 안전 뉴스

### VIEW + 대전시 안전 홍보물

- 30** 안전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 대전세종연구원
- 32** 보이스피싱, 정확하게 알아두자!  
안심하고 전화받는 도시
- 33** 바로 이 목소리,  
보이스피싱 상습범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 34** 도로 위 지뢰 블랙아이스 대처, 이렇게!
- 35** 눈길 안전운전 요령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발행인 대전세종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  
042-530-3500  
www.dsi.re.kr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대전안전」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입니다. 「대전안전」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거진 「대전안전」에 게재된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전\_보이스피싱

#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금전 요구시 진위여부 확인, 그리고 예방 및 대응

박재풍\_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경찰패널연구센터 센터장



우리나라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1,451억 원이고, 전년과 비교해서 231억 원이 감소하였다. 전체 피해금액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 유형은 가족·지인,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칭형(1,140억 원, 78.6%)이고, 다음으로 대출빙자형(311억 원, 21.4%)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과 지인 등의 사칭형은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23).



##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 피싱이란 “Voice(음성)+Phishing (Private data(개인정보)+fishing)”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보이스 피싱에서 “Phishing”의 어원적 특징이 함의하듯이, 특정 대상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음성 등의 전달 수단을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보이스 피싱은 친인척과 가족관계, 금융정보,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스마트폰의 메신저, 음성통화, SNS 등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이다(현새롬, 2021).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스미싱(Smishing), 파밍(Pahrming) 등의 사기 범죄가 있지만, 보이스 피싱의 본질은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특정 개인의 정보 및 배경을 사기 범죄에 악용한다는 점이다(이용훈, 2020).

보이스 피싱 피해의 예방과 대응 노력으로 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보이스 피싱이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보이스 피싱은 1세대(계좌이체)에서 2세대(대면범죄)를 거쳐 3세대(다른 범죄와 결합)로 진화하고 있다. 1세대 보이스 피싱은 대포통장 규제 강화 대책 등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한 범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대출이나 사기 등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뒤 현금을 뽑아 수거책에 전달하는 방식의 2세대로 변화하였다. 결국 보이스 피싱은 다양한 범죄와 결합하여 수법이 더욱 교묘해질 것이고 3세대 보이스 피싱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한겨레, 2023. 4).

결국 피해금액의 규모와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은 개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기 범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스 피싱에 직면했을 때 보이스 피싱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인지하려면, 보이스 피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죄 수법으로 현상되는지 그 유형을 알아보고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법·제도적 틀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취해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보이스피싱의 범죄학적 배경은 무엇일까?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상 중심의 실태연구(발생현황, 범죄유형 및 수법, 예방 및 대응 측면의 법과 제도 등)가 주류를 이루고, 그 외 범죄학 분야의 이론을 바탕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의 과학적 일반화를 발견하고 검증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쉽게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질적인(범죄자와 피해자의 인식, 변화된 사회구조 등) 연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일반화할 종합적인 이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선행연구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학적 이론의 검증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범죄학 이론적 관점에서의 보이스피싱

보편적 이론	
구조적 선택이론 (Structural-Choice Model of Victimization)	
<b>내용</b>	전통적인 범죄피해가능성 이론인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한 이론으로, 구조적 요인은 '주어진' 조건(범죄의 기회구조를 구성하는 요인)과 선택적 요인은 '유발하는' 조건(해당 범죄의 피해자로 선택되는 요인)을 의미함(Miethe & Meier, 1990)
<b>실증분석 사례</b>	김아름·양혜경(2020) 연구에서 노후대비에 관심이 있는 집단, 경제적 여유자금에 있는 집단, 무직 등의 특성을 가진 집단이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당할 확률이 높음

보이스 피싱 실태 및 피해유형



개별적 이론  
기회이론 / 자기과신 / 행동경제학 / 사이버사기범죄

내용

- 기회이론: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달하고 변화함에 따라 역설적이게 범죄의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특히 사기범죄에서 그런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남(Grabosky, 2001)
- 자기과신: 개인이 본인의 직관성, 판단능력, 인지능력에 대한 무한의 믿음과 신뢰감으로 인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Pompian, 2012), 자신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미래 예측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Rad & Kirkby, 2005)하기 때문에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됨
- 행동경제학: 인간은 현실세계에 주어진 정보의 한계와 감정과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사고 및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음. 따라서 인간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사고가 정지하고, 대략적인 추측에 의존한 선택을 하기(Tversky & Kahneman, 1974)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 사이버사기범죄: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이버공간을 창조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범죄가 생기고, 이전 범죄와 융합되어 새로운 범죄가 형성되는 영역이 됨(여해린, 2022)

실증분석사례

- 김아름·양해경(2020) 연구에서 자기과신 수준이 높을 수록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당할 확률이 높음
- 문인수(2023) 연구에 의하면, 재산범죄 피해 두려움, 재산범죄 간접 피해 경험, 보이스피싱 노출 경험이 사기 범죄 피해 경험 혹은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김민정·김은미(2020) 연구에 의하면, 금융소비자(펀드투자자대상)관점에서 보이스피싱의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없고 누구나 취약한 것으로 검증되고, 금융사기 교육 유무에 따라라도 보이스피싱 피해 유무에 차이가 나타남(질적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 요구됨)

1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률, 환급액 감소

아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원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특히 환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피해예방이 요구된다.

[표 2]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년대비 증감(률)
피해금액	4,440	6,720	2,353	1,682	1,451	(△13.7)
환급액	1,011	1,915	1,141	603	379	(△37.1)
환급률	22.8	28.5	48.5	35.9	26.1	△9.8
피해자수	48,765	50,372	18,265	13,213	12,816	(△3.0)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4)

2 10가지 보이스피싱 피해유형

보이스 피싱이 진화하면서, 보이스 피싱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보이스 피싱을 10가지로 유형화하여 예방하고 있다. 10가지 유형은 ①자녀납치 및 사고방자 편취, ②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③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④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⑤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⑥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⑦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⑧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편취, 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⑩물품대금 오류송금 방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이다(정책공감, 2023). 10가지 유형에서처럼 보이스 피싱의 공통된 특징은 특정 대상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전에 유출된 상태이고, 그럴듯하게 특정 대상을 속이는 기망행위 혹은 협박·공갈 등으로 상대방을 곤란한 상황에 처해 놓고 금전을 편취한다는 점이다.

특히 <표3>과 같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1,140억원)이 78.6%로 과반을 차지하며, 대출방자형(311억원)은 21.4% 수준이다. 특히, 사칭형의 경우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사칭 메신저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20년15.9%→'22년 63.9%)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유형

(단위: 억원, 명, %, %p)

구분	'20년		'21년(A)		'22년(B)		증감(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출방자형	1,566	(66.6)	521	(31.0)	311	(21.4)	△210	(△9.6)
사칭형	787	(33.4)	1,161	(69.0)	1,140	(78.6)	△21	(9.6)
메신저피싱	373	(15.9)	991	(58.9)	927	(63.9)	△64	(5.0)
기관사칭	414	(17.6)	170	(10.1)	213	(14.7)	43	(4.6)
합계	2,353	(100.0)	1,682	(100.0)	1,451	(100.0)	△231	-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4)

3 가족친인척 사칭형 범죄 급증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은 <그림 1>과 같다. 1단계에서는 특정 대상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전화·문자 등의 메시지를 시도하는데, 이 시점에서 사전에 확보된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 대상에게 기망·공갈(3단계) 행위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금전편취(4~5단계)가 진행된다. 아래 <그림 1>처럼 딸을 사칭하여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자녀에게 사고가 났거나 납치했다는 등의 공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가족·친인척 등의 사칭형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50~60대 연령층에서 피해규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 결국 불법으로 사전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기망·공갈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보이스 피싱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림 1]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



• 출처: 정책공감, 정책사용설명서: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2023. 3. 29)

• 출처: 주간조선(2022. 5. 16)

• 출처: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보이스피싱 사전 인지를 위한 행동요령 마련

우리나라는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보이스 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직접적으로 명명하고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보이스 피싱 대응 노력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피해가 감소하였으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2023년 2월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 2). 그러나 이 법은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처벌 수준도 낮으며,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표 4】「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주요 개정 내용(2023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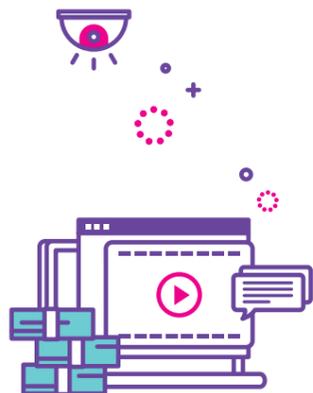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li> <li>•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함</li> <li>•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 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해짐</li> <li>•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강화와 관련하여,</li> <li>•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li> <li>•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li> <li>•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 및 인출, 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li> </ul>

보이스 피싱의 방지와 피해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고, 실제로 대응하는데 법적 한계는 있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가 보이스 피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그 동안 보이스 피싱 범죄를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 마련되어 있다(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지침이, 2023). 우선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금지급기 유도, 자녀 납치형 등의 연락이 오면 개인/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진위내용을 확인한다. 만약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를 신속히 폐기하도록 한다. 항상 개인은 예금 통장 및 체크 카드를 양도하지 말고, 언제든지 발신번호가 조작될 수 있으며, 문자로 수신된 홈페이지 주소 여부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정부기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표 5】보이스 피싱 예방 요령

01 금융거래정보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않는다.	0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0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07 예금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를 금지한다.
03 자녀 납치형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비한다.	08 발신번호는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0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다.	09 문자로 수신된 홈페이지 주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0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10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침이(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검색일자 2023. 8)



##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 필요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 범죄이다.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스 피싱은 어느 사람에게나 취약하고 보이스 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김민정·김은미, 2021). 따라서 개인이 보이스 피싱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첫째, 보이스 피싱은 사전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스마트 폰 등의 전기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개인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스마트 폰의 SNS, 인스타그램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공유되는 사회에서, 보이스 피싱은 가족·지인의 사칭형 메신저 피싱이 성행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도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 피싱은 새로운 수법으로 개인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무조건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자녀사칭, 납치, 공갈 협박 등)이 발생하면, 그 상황의 진위 여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보이스 피싱에 대한 새로운 정보(법률, 범죄 유형 등)가 추가되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이스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법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지킴이” 등의 홍보를 통해 보이스 피싱을 쉽게 이해하고, 사전 예방과 범죄에 당했을 때 대응 요령, 새롭게 추가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사례 등의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 2)
- 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지침이,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검색일자 2023. 8)
- 김민정·김은미, (2021). 보이스 피싱 피해 경험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소비자원, 52권 1호, 52-71.
- 정책공감, 정책사용설명서: 보이스 피싱 주요 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2023. 3. 29)
- 이용훈, (2020). 보이스 피싱의 행위별 죄책에 관한 형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겨레, 보이스 피싱+테러로 '변종진화'..대분이 바뀐다., 2023. 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514.html, 검색일자 2023. 8.)
- 현새롬, (2021). 보이스 피싱 범죄수법의 진화와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의 활성화 방안

임창호\_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강화되는 보이스피싱 예방정책, 근본적 해결책은 없나?

오늘날 일반 시민은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절차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1회 100만 원 이상을 송금·이체 받은 경우에 입금 후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을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부는 범정부 TF 중심으로 범행 단계별 대응전략으로서 (1) 철저한 범죄예방, (2) 범죄수단 신속 차단, (3)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4)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등을 시행한 결과,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표 1] 범정부 TF 중심으로 범행단계별 대응전략

범죄예방	신속차단	긴밀한 협업	다양한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 강화</li> <li>2 개선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li> <li>3 안심마크 서비스, 공공·금융 기관에서 시범운영</li> <li>4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 통신사: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번호의 이용금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중계기의 사용 중단</li> <li>2 은행권: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송금' 방식 적용 등 본인 확인절차 강화</li> <li>3 은행권: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시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아카운트 인포) 서비스 시작</li> <li>4 경찰: 악성앱, 문자, 대포폰, 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 차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합동수사단의 활약을 통해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을 검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 부처의 범죄예방 캠페인 실시</li> <li>2 은행창구, ATM 고객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li> <li>3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li> <li>4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li> </ol>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1조 7,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 수 기준으로 대출빙자형 피해자(9만 1,864명)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지인사칭형 피해자(4만 4,241명), 기관사칭형 피해자(1만 2,655명)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1) 범죄유형 및 단계별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 및 대책 고도화, (2) 과학기술 및 통신발전에 따른 신종수법 대비 대응책 수립, (3) 수사기관간 공조 강화, 총책 검거 전략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하여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 통신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제도를 도입하고,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거 방지 등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겠지만 일반 시민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출을 빙자하거나 지인을 사칭하거나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메시지에 주의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초기 단계인 출처 불명의 문자 메시지 또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 시민 대상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교육 어디까지 와있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출발점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시민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하여야겠지만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범정부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행단계별 대응전략 중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반 시민은 보이스피싱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법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112 신고 이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일반 시민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관련 정보를 단지 TV 뉴스를 통해서 접할 뿐 체계적인 범죄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일반 시민은 미리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파악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철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손쉽게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둘째,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강사 양성 체계가 미흡하다. 보이스피싱 예방 강사의 경우 전문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또한 더욱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자료: 경기북부경찰청 홍보 리플렛

자료: 금융감독원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은 사전에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여 지급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 양성 체계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을 위한 최신 교육자료가 부족해서 예방 강사를 비롯해서 일반 시민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관련 최신 교육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기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2023년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시로 개정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대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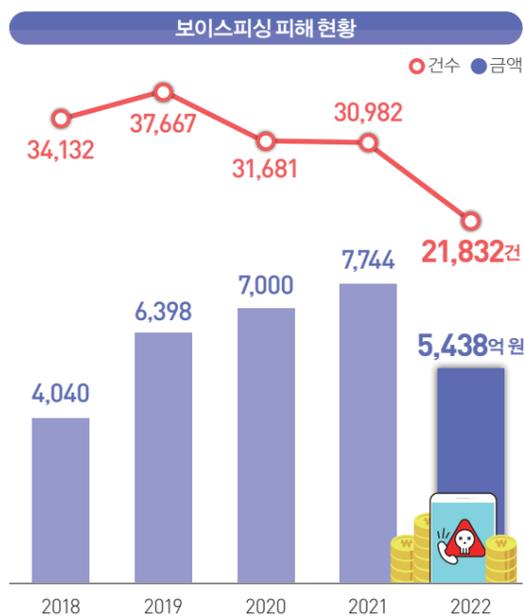
넷째,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각 정부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정책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더욱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정부는 시민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체계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이 강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언제든지 손쉽게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지능화되어 가고 다양화되어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을 위한 우수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격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공인 자격증 제도와 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 후에는 엄격한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교육 중에도 충분한 시범강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양질의 예방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직 경찰관은 범죄 특성 및 범죄예방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전직 경찰관을 보이스피싱 예방강사로 양성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보이스피싱 예방 강사의 경우에도 수시로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



연합뉴스 | 원형민 기자 20230724 | 자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등에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게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지킴이'의 불법금융예방 콘텐츠를 살펴보면 1분 정도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영상(제1화, 제2화, 제3화)이 2021년 10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어 있는데 최신 예방 정책 및 피해시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 자료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기적으로 이전의 맞지 않는 자료는 폐기하고 최신 내용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중에서 '기관 사칭형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전문제해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예방강사'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방 강사, 예방 강의 콘텐츠,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양성된 예방 강사가 범죄피해를 당하기 쉬운 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그 예방 효과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넷째, 앞으로 시민단체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023년에 대전시에서는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앞에서 소개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설립취지 및 사회적 기여도를 살피볼 때 시민단체의 참여는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시민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노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과 협업함으로써 범죄피해 취약계층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강화 적극 지원해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제든지 새로운 수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파고들 것이다. 우리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이 항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강사를 양성해서 피해를 입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더욱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은 사전에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여 지급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2, 제3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감소하지만...’ 규모화·조직화·공공기관 사칭 특징

김민영\_작가

### 사례1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 아주머니 B씨가 다급하게 아파트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해왔다. 자녀가 다쳐서 송금을 빨리해줘야 은행 영업시간을 문의하러 온 것이었다. A씨는 순간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B씨가 받은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송금받는 사람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경찰에 조회해보도 될지 여부를 문의하자 말없이 전화가 끊어졌다. A씨의 재빠른 기지로 B씨는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 사례2

대전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최근 지인에게 ‘아버지가 별세하셨다는 내용의 부고 메시지를 받았다. 모바일 부고장이 흔하게 유통되고 있고, 이는 지인의 이름이 있던만큼 김씨는 의심없이 URL을 눌렀다. 순간 휴대폰은 먹통이 됐고, 손을 쓸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동안 휴대폰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지인들에게 휴대폰 해킹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감소, 검거율 증가

대전경찰청이 밝힌 지난 5년간 전화금융사기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에는 1434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55억에 이른다. 이 가운데 846건을 검거하고 검거인원은 1097명(82명 구속)이었다.

2020년은 1014건(피해액 207억원), 2021년 917건(피해액 207억원), 2022년 678건(피해액 126억원), 2023년 10월말현재 506건(피해액 108억원) 등이었다. 2019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검거건수가 발생건수 대비 59%에 불과했지만, 2020년 94%, 2022년 103%, 2023년 100.5% 등 한해 발생건수 대비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대전지역 전화금융사기 발생, 피해,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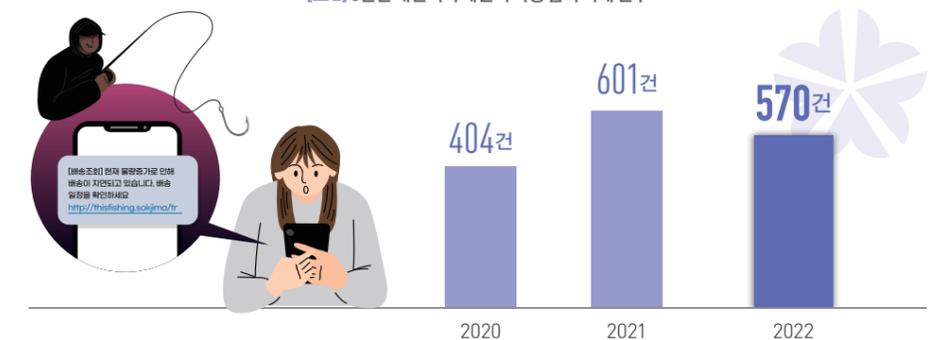
	발생건수	피해액(억원)	검거건수	검거인원(구속)
2019년	1434	255	846	1097(82)
2020년	1014	207	957	1354(113)
2021년	917	207	573	771(79)
2022년	678	126	702	746(24)
2023년 10월	506	108	509	539(42)

대전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다. 스미싱, 파밍, 피싱, 메모리해킹, 로맨스 스캠 등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진화하고 있고 방식과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등의 영향으로 범죄가 주춤하는 경향이 크지만 메시지를 통한 피싱 범죄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전경찰청이 밝힌 2020년부터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연도별 메시지 피싱 범죄 피해 건수를 보면 2020년 404건에서 2021년 601건, 2022년 57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고, 해외결제, 연말정산, 합격 문자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메시지 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3년간 대전지역 메시지 피싱 범죄 피해 건수





### 규모화, 조직화 되는 보이스 피싱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현금 수거책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총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

지난 2023년 12월 대전에서 20억원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벌인 총책이 검거됐다.

범죄단체조직,활동,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범죄 단체를 만들기로 공범들과 공모 한 뒤 지난 2014년 3월 중국칭다오의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렸다.

공범 B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중국에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글을 올려 비자와 항공권을 주고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사무실과 숙소를 빌려 설비를 갖춘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담원들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담원 간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까지 만들었다.

A씨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 6월까지 134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20억68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대표통장을 이용하고, 문화상품권 고유번호로 편취금을 보내게 한 뒤 국내 환전업자를 거쳐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파사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더구나 현금 수거책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총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붙잡혀 범죄단체 가입 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상담원 등 공범 18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2년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8월 발생한 13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고도화된 범죄방식을 보였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피해 금액을 전달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중적 사이트에서 정상 기업처럼 가장해 현금 수거책을 채용 형식으로 악용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중국 청도와 대련에 사무실과 숙소를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66회에 걸쳐 13억1100만 원을 가로챈 A(32)씨에게 범죄단체가 입과 활동,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았다. A씨가 활동한 단체는 사장과 팀장, 상담원으로 역할을 정하고 직원간 실명 사용 금지,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무실과 숙소의 물적 설비를 갖춘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추세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66회에 걸쳐 13억1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로 전송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보내게 한 후 국내에 있는 사설 환전업자를 거쳐 위안화로 교체하는 '신종 자금세탁 기법'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검찰은 A씨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주범을 함께 기소해 재판 중으로, 범죄수익금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 토지, 차량을 추징했다.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피해다.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공권력을 사칭하며 교묘히 파고드는 수법에 고학력 층이나 전문직들마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저금리 대출전환 등을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2021년 647건에서 지난해 348건으로 46.21% 감소했다. 반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21년 270건에서 2022년 330건으로 22.2% 증가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위협에 노출돼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한 공무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1억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당신은 성매매 특별법 관련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면서 휴대폰에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했다. 조직원은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통화를 가로채고 송금을 종용했으며 "은행 직원이 인출 사유를 물어보면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둘러대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이어갔다.

한 40대 의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41억원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본인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말에 속아 예적금을 해지해 현금수거책을 직접 만나 전달하고 대표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등을 경험하지 못한점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와 문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연결된다.

보이스피싱 예방전문가들은 "최근 공공기관 사칭 범죄는 전화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고 만나서 일어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며 "실제 공공기관은 계좌이체 등을 종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112 등 공신력 있는 곳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박미랑

# 국적, 직업, 성별까지 바꾸는 '로맨스 스캠'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청조와 펜싱국가대표 남현희 선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종 사기수법인 '로맨스 스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다. 피해자에 대한 이성(혹은 동성)적인 관심을 가장해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다음 거짓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다양한 수법 등이 언론이나 SNS등에 공유돼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만, 로맨스 스캠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범죄여서 피해자가 매년 증가 추세였다

### 외국인 범죄, 로맨스 스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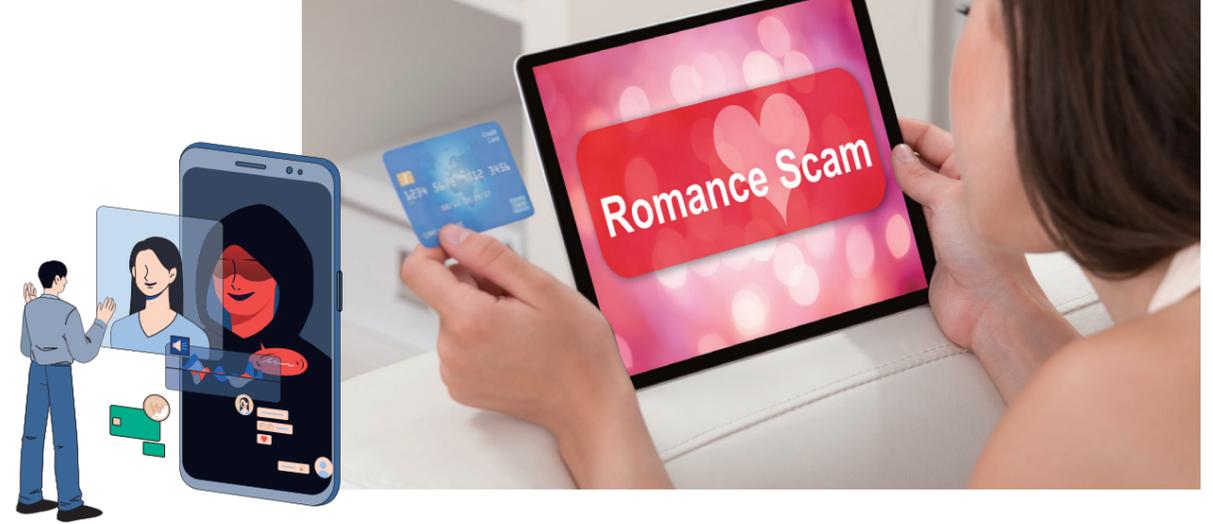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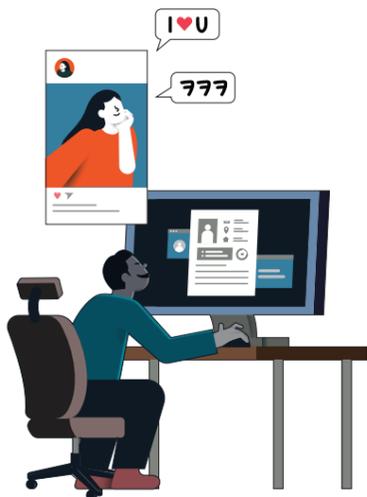
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는 최근 로맨스 스캠 범죄와 관련된 재미있는 논문 한편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내 로맨스 스캠 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문 73건을 분석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로맨스 스캠 범죄의 양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박 교수의 논문에서 피고인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국적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출신이 다수 포함됐으며, 불법체류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미국이나, 영국의 군인이나 의사 등을 사칭했다. 피해 규모는 최대 13억 8000만원까지 존재했지만, 평균 1억원의 피해 규모를 보였다.

###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박 교수는 73건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가해자의 특징을 분석했다.

그는 "이번 판결문의 피고인은 100% 외국인이었다. 이들의 국적이 판결문에 드러난 경우는 40% 미만이지만 남아공, 라이베리아, 우간다, 카메룬 등 아프리카 대륙출신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들이었다"며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경로는 난민신청지역, 단기방문비자, 유학비자, 불법체류 신분 등이었다"로 밝혔다.

박 교수의 연구에 활용된 73건의 로맨스 스캠 사건은 100%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대 8년이 선고된 사건은 인천에서 선고된 사건이며 피해자수가 34명, 피해금액이 13억원이 넘어섰다. 분석된 사건가운데 해당 피고인들이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는 총 48명으로 65.8%에 해당한다.



박 교수는 "분석된 로맨스 스캠은 국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사실상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세분화돼 있었다. 이들은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면서도 상대방의 신원 정보를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 로맨스 스캠 수법

박 교수가 분석한 판결문에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로맨스 스캠의 시나리오는 가장 많은 피해자에게 돈과 선물을 보내려 하니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내용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또는 본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금을 한국에 반입하려고 하니 관련되는 비용을 지불해달라, 혹은 짐을 대신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본인의 처지나 가족의 처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도 상당하였다.

사례를 살펴보자.

- 피고인1** "나는 한국계 미국여자다. 현재 시리아에 파병된 미국신분 군인이다. 이제 시리아를 떠나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에 살고싶다. 달리가 들어있는 상자를 한국으로 보내려하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 피고인2**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에서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일을 하였고,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계약금을 받게 되었다. 영국 운송회사를 통해 계약금 15억, 중요서류, 귀중품 등을 보낼테니 대신 운송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받아달라"
- 피고인3**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유지하고 있는 미국 여군이다. 군 생활을 마무리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 사람을 구하고 있다. 부모님의 유산을 군인이라 수령할 수 없어 대신 수령해줘야 하는데 수령하려면 영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제 송금 스위트 부서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25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야한다. 돈을 보내줘라."

박 교수는 사기 시나리오상 사칭한 직업이 군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의 비율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 파견중인 미국 군인 혹은 유엔 군인이라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군인을 사칭하는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해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상황적 특징을 만들어 내기 좋고,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한하기에 명분이 좋고, 군인라는 직업이 주는 신뢰의 이미지 등을 손꼽았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누군가가 엄연히 피해를 받고 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너무 사적이고 가벼운 관계로만 치부하고 있고, 아무런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 현황 파악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진행한 연구"라며 "보이스피싱 처럼 로맨스 스캠도 조직적 대응과 홍보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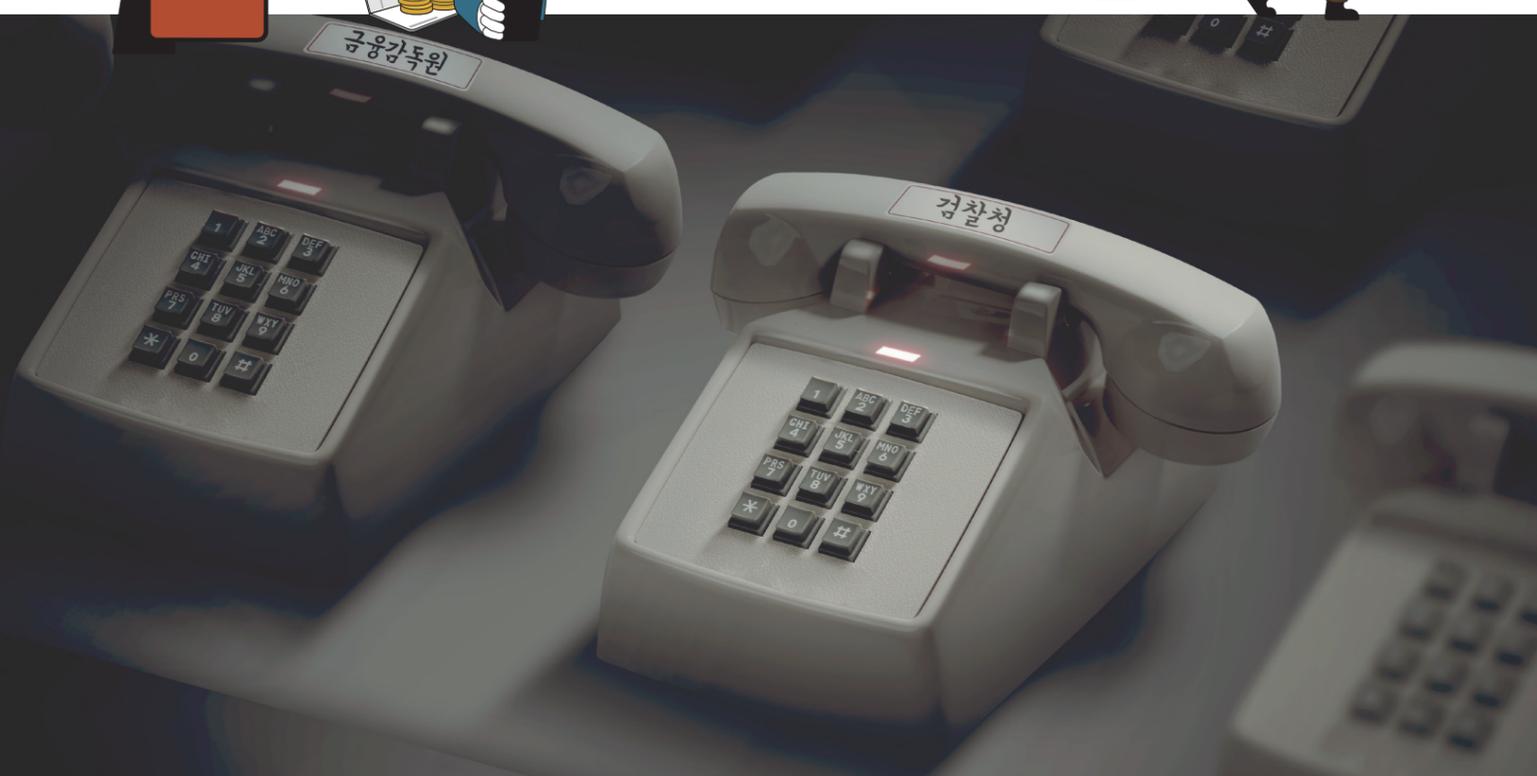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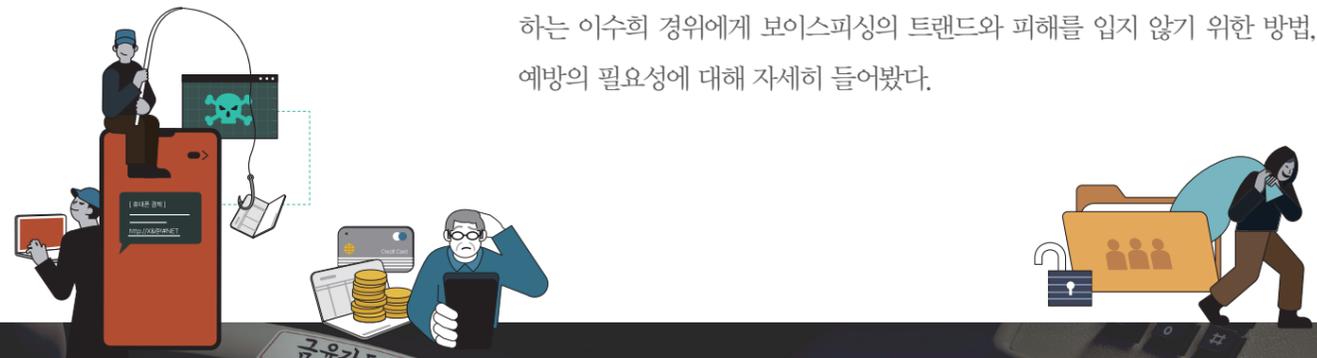


# 보이스피싱 범죄, 아직 순번이 되지 않았을 뿐!

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 이수희

“아직 순번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구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예방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이수희 경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을 “아직 순번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타이틀로 진행한다. 초창기 보이스 피싱은 허술했던 범죄였지만, 점점 진화하는 수법과 방식 때문에 누구든 보이스피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사례를 접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이수희 경위에게 보이스피싱의 트렌드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Q 보이스피싱의 트렌드?

“과거 보이스피싱 대상이 노인이었다면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과 대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휴대폰 다루기에 능숙하고 노출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추세예요”  
이 경위가 현장에서 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과거 무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보이스피싱은 젊은층으로 보이스피싱이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체킹하는 부분까지는 검증은 하지만 ‘의심의 선’을 뛰어넘으면 누구보다 굳건한 신뢰를 갖고 보이스피싱에 걸려들게 된다. 휴대폰에 능숙하고 휴대폰을 통해 각종 금융활동을 하는 젊은층들은 의심하는 부분이 안전하다고 믿게 되는 순간 누구보다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한가지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가 ‘피해자+가해자’가 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댓가로 손쉽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기도 한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본인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누명까지 쓰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다.

“70대 할아버지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을 찾아오셨어요. 자녀 대신 손녀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시집을 보내려고 풍돈을 모아 7000만 원을 만들었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한번에 이 돈을 날렸어요. 뒤늦게 찾으려 했지만 이미 다른 계좌로 넘어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상당수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대해 누구나 ‘사기일 것’이 아니라 ‘혹시’라는

의심을 갖게되면 이미 피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 Q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

이 경위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모르는 사람의 전화는 웃어넘기고 끊어버리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단언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아동납치 상황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112에 확인하거나 자녀에게 전화하는 절차를 거쳐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젊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고 전언했다. 휴대폰 조작에 자신있어하는 젊은 학생들이 더욱 보이스피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는 “문자를 통해 전달된 잘못된 URL을 클릭해 금융권 연결과 휴대폰 정보 노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Q 보이스피싱 예방의 필요성?

이 경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적인 예방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번 반복하고 환기시키는 강의는 끊임없이 이뤄져야하고 무한 반복에 노출 될수록 더욱 조심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는 전화상으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았지만 점점 대면형이 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는지 알면 보이스피싱이 단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희 경위는 노인대학, 기업체, 종교단체, 기관, 학교 등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600회가 넘는 강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수사연구원 외래강사, 피의자면담기법 전문 수사관, 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성폭력·가정폭력 교육강사 등 15년간 각종 전문 강사를 역임했다. 지난 2014년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표창, 2017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최우수강사로 선정됐으며, 2018년에는 동료강사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주)필상 대표

## 강필상

# AI 보이스피싱 차단기술 '쌩다잡아' 플랫폼 개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주변의 서민들이 많았어요. 약자들이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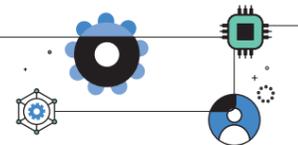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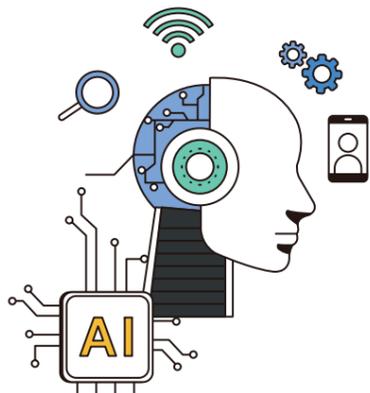
대전 창조경제연구센터에 위치한 (주)필상의 강필상 대표는 보이스피싱 차단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쌩다잡아'라는 플랫폼을 개발해냈다.

강 대표가 연구팀과 함께 개발해낸 이 앱은 URL 공격까지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모바일 앱으로 창업 1년여 만에 한국전력공사, KT, 경찰청, 자치단체 등과 사업 수주를 완료했거나 계약을 조율 중이다.

기존 URL 차단 방식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해당 공격 URL을 수동으로 분석해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놓으면 이를 기반으로 탐지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차단 방식을 이용하면 시간도 발생이후 2주나 소요되며, 리스트에 없는 URL은 차단이 불가능했다.

### Q '쌩다잡아'의 인공지능 기술?

'쌩다잡아' 인공지능 기술은 인공지능 탐지 모델로 신규 악성 URL을 실시간 자동탐지하는 기술이다. 실제 악성코드가 수행되기전에 인공지능이 웹에 검색해서 악성 키워드 등 특징점을 추출해 학습하고 이를 차단한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탐지된 URL을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하다보니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해 받게 되는 악성 URL의 실시간 탐지도 가능해 98.6%



의 차단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이런 기술을 인정받아 국내 특허등록 1건과 국내 특허출원 3건, 국제특허출원 4건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 Q AI 보이스피싱 차단기술을 개발한 (주)필상의 목표?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1832건이었으며, 피해금액은 5438억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30% 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과거 고령층 대상의 범죄였던 것이 신중 수법으로 전 연령층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태.

(주)필상은 올해 자사만 사용 가능한 탐지기술을 정부의 디딤돌 R&D사업으로 인공지능 서버를 통해 다른 모바일 장치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을 완료했다. 이 기술을 경찰대학, KISA(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해 원천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일보가 주최해 국내 우수특허기술을 발굴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IT/솔루션'부분 '2023 제17회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을 수상했다.

이 업체는 이런 기술을 인정받아 '구글(Google)'로부터 '민감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됐으며, 구글로부터 정식 보안 어플로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카카오뱅크가 선정하는 '핀테크 이노베이션' 20개 기업으로 최종선발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플랫폼을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경찰청에 공유해 후속 피해를 막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사이버공격 대응 자동화 사업을 수주해 지난 2달간 43건을 탐지하는 등 기술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강 대표는 “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50%까지 은행에서 배상하라는 정부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과의 기술논의도 진행중”이라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메신저/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대처방법

## ▶ 로맨스 스캠



### 경찰 조사받고 나오던 '로맨스 스캠' 피해 20대 여성 투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포인트 환전형 사기 피해를 당해 진정한 조사를 받고 나온 2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함. A 씨는 '로맨스 스캠' 사기의 일종인 포인트 환전형 사기 피해자로 알려짐. A 씨는 문제의 상대방으로부터 SNS를 통해 '일부 대가를 줄 테니 특정 사이트에 묶여있는 30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대신 찾아달라'고 요청받음. 이후 포인트를 찾으려면 90만 원을 입금하라는 사이트 상담원 안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함.

(출처: 2023.11.14. 문화일보, 임정환기자)

## ▶ 메신저 피싱



### "엄마, 휴대폰 고장났어" ...진화하는 메신저 피싱

시작은 휴대폰화가 고장 났다며 신분증을 요청하는 딸의 문자 메시지 한 통. 곧이어 휴대폰화 보험금 청구 절차라며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함. 하지만 부모의 휴대폰화에 깔린 건 보험사 앱이 아니라 원격조종 앱이었음. 이렇게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조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계좌에 접속해 쇼핑몰에서 수천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자신들의 계좌로 환불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방식을 썼음. 바로 출금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거쳤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빨리 알 수 없었음. 2023년 올해 5월부터 6월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20명,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음. 일당은 이렇게 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2023.09.25 KBS, 곽동화기자)

## ▶ 몸캠피싱



### "돈 보내지 않으면 영상 유포하겠다" ... 몸캠피싱 범죄 가담자 징역 2년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은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음. 중국 국적을 보유한 김씨는 인출책·송금액을 맡은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조직원으로, 지난해 6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최모씨(44·남)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함. 이 조직은 최씨의 휴대폰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성적 행위를 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함. 또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지인의 휴대폰화번호를 이용해 최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함. 최씨는 이들 조직에 150만원을 송금. 김씨는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피해 금액을 인출한 뒤 특정 장소에 갖다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함.

(출처: 2023.07.19. 뉴스원, 이기범기자)

## ▶ 파밍



## "네이버 안심결제 믿었는데"...중고거래 '먹튀' 속출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중고거래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함. 판매글에는 전화번호와 메신저 ID까지 공개돼 있었음. A씨는 인터넷 결제 링크를 타고 돈을 이체했으나, 판매자가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다시 이체하라며 추가금을 요구함. 그리고 판매자가 환불 처리를 위해 환불 단위를 운운하며 추가금을 요구함. 이에 A씨는 추가금을 입금했으나, 차후 환불 처리 상황 확인을 위해 링크에 다시 접속했으나 해당 링크 자체가 가짜 링크인걸 확인하고 사기인걸 눈치챈.

(출처: 2023.11.14., 국민일보, 박종혁기자)

## 메신저/보이스피싱 어떻게 예방하면 될까요?

<p>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p>	<p>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은 삭제합니다.</p>	<p>금전 요청 시, 상대방 본인 여부를 전화로 확인합니다.</p>
<p>송금 시 다른 사람 명의일 경우 송금하지 않습니다.</p>	<p>모르는 사람이 전송한 파일과 인터넷 바로가기(URL)은 절대 실행하지 않습니다.</p>	<p>보안백신 설치 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p>

## 메신저/보이스피싱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메신저/전화 사기범들에게 속아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셨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기관에 신고하세요!

거래은행 지급정지신청	신속하게 자금을 이체한 은행이나 해당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li> <li>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며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 시 철저한 본인확인이 요구됩니다. (단, 우체국, 새마을 금고는 별도 신청 필요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노출 시 카드사에 신고)</li> </ul> 금융감독원 : <a href="https://www.fss.or.kr">https://www.fss.or.kr</a> ☎ (국번없이) 1332, (02) 3145-5114
수사기관에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 접수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li> <li>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a href="https://ecrm.police.go.kr">https://ecrm.police.go.kr</a></li> <li>☎ 긴급신고 112(무료) / 민원상담 182(유료)</li> <li>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a href="https://www.spo.go.kr">https://www.spo.go.kr</a> ☎ (국번없이) 1301(유료)</li> </ul>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 <a href="https://privacy.kisa.or.kr">https://privacy.kisa.or.kr</a> ☎ (국번없이) 118



### 대전시, 2023년도 지역안전지수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일시: 2023. 7. 25(화) 장소: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청 안전정책과장 주재로 2023년도 지역안전지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주 참석대상은 시·구, 유관기관 범죄 및 자살 분야 담당자, 안전지수 TF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관계분야 전문가로는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이승욱 박사, 한남대학교 이도선 교수, 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 정영순 팀장이 참석하여 지역안전지수의 범죄와 자살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 2023 SAFE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행사부스 참가

일시: 2023. 9. 22(금) ~ 23(토) 장소: 엑스포시민광장 일원



도시안전연구센터는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리는 'SAFE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에 '도시안전'이라는 주제로 홍보부스에 참여했다. 행사부스는 본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시민안전의식조사를 통한 대전시민의 안전체감도를 진단하는 설문을 조사하였다. 이번 설문을 통해 안전개선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프로그램 참가 (1차~6차)

일시: 2023.09.02(토) ~ 2023.11.30(목)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대전도시안전센터는 지역안전지수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시	강사	장소
1차(09.02)	대전대학교 임창호 교수 대전대학교 김필승 교수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교육장
2차(11.06)	유성경찰서 이수희 경위	대전세종연구원 1층
3차(11.15)	전구봉지구대 대장 심국보 강사	국가철도공단 3층 세미나실
4차(11.17)	대전대학교 김필승 교수	대주파크빌아파트 노인회관
5차(11.21)	대전대학교 김필승 교수	슬랑아파트마을 노인회관
6차(11.30)	대전대학교 임창호 교수	대전대학교 인문사회관





## 대전광역시 안전 전문기관 설립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일시: 2023. 10. 5.(목)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중회의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대전시 안전전문기관 설립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대학교, 원광대학교, 동아대학교, 충남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이승욱 전문연구위원의 대전광역시 안전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추진방안, 조성 교수의 대전광역시 재난안전 전문기관의 기본 구상 및 조직구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각 안전에 관하여 참석한 전문가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식

일시: 2023. 12. 01(금) 장소: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2층 대강당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와 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지속가능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안전공동체 조성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대전광역시정신건강 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생활안전 관련 연구개발, 실증, 보급·확산 등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안전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련 사업과 연구공동수행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 정책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 UNDRR(재난복원력 중심도시) 동향과안전센터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안전분야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일시: 2023. 11. 20(월) 장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1층 컨퍼런스홀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11월20일 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 'UNDRR(재난복원력 중심도시) 동향과 안전센터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안전을 위한 안전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UNDRR에 대한 정보 공유와 담론의장'으로 마련됐다.

UNDRR 인증도시인 인천연구원 조성윤 센터장과 울산연구원 운영배 연구위원의 'UN 방재 안전도시 동향 및 추진전략'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재난안전 및 안전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대전세종연구원 박노동 부원장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도시안전연구센터도 안전 사회를 위한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다양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안전거버넌스 구축과 공감대 형성을 확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목격한  
우리에게 안전문화 확산을 심어주는 통찰

# ‘안전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의 부설연구조직인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최근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책을 발간하였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대전시의 도시안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관리로 ‘안전한 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신설된 연구조직이다. 다양한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발간된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은 시민의 안전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재, 교통, 범죄, 감염병, 생활안전, 자살, 산업안전, 보이스피싱, 테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이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이태

원 참사 등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통찰을, 지자체에는 안전한 도시로 발전시키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책을 통해 대전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에 안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책은 원하는 누구나 대전세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책을 원하는 분은 chaeyoon@dsi.re.kr로 문의하면 선착순 20명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과거의 테러와 범죄는 특정 대상을 겨냥하였지만, 점차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도시의 복잡화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대전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前)경찰청장 김창룡



‘불안(不安)’이란 마음이나 몸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늘어가는 요즘, 현대사회의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 없는 필요악입니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불안의 시대에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아울러 해법을 제시한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대전 시민들이 두고두고 새겨야 할 지침서가 아닐까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장 강성기



기획도서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화재, 교통, 범죄예방, 감염병, 생활안전, 산업안전, 자연재난, 폭력범죄, 보이스피싱, 테러, 자살 등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재난 및 안전의 핵심 이슈들을 다루며,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집대성된 본서는 대전(大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한 도시로 발전시키는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세테드학회 회장 이동희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요인들은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위기, 생활위기,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요인들에 대한 소개와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 스스로의 안전관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이창길



## 보이스피싱, 정확하게 알아두자! 안심하고 전화받는 도시

안심하고 전화받는 도시  
**대전시와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캠페인**  
-첫번째 이야기-  
보이스피싱, 정확하게 알아두자!

**EP1. 보이스피싱, 정확하게 알아두자!**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CASE 02  
**입금이 곧 수사협조?!**

**EP2. 이스피싱 사례, 제대로 알아보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P3. 보이스피싱, 대응요령**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및 URL 접속, 팝업창 등으로 금융거래정보 수집 등 보이스피싱 사례 소개를 통해 대응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EP4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요령**  
이번 영상에서는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목격한 우리에게 안전문화 확산을 상아주는 통합  
**'안전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EP5.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감염병, 생활안전, 자살 등 다양한 이슈와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대전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 01 지역안전지수 편

**EP6. 대전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지역안전지수편)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살펴봅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바로 이 목소리, 보이스피싱 상습범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 주된수법 : 고립된 장소로 유도하여 주변인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

**보이스피싱 상습범**  
녹취 중에는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개입되면 안 되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피해자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의심하GO, 끊GO, 확인하GO, 3GO 언제나 실천하세요!



### '바로 이 목소리'

**주된수법**

- 고립된 장소로 유도하여 주변인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
-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문용어 구사
-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출석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

**모범대응**

- 내 명의 계좌는 어음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데 왜 조화가 되지 않냐고 반문
-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문용어 구사
- 직접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대응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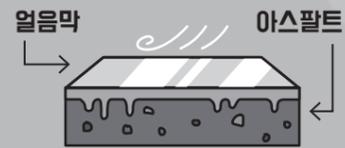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도로 위 지뢰 블랙아이스 대처, 이렇게!



##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내린 눈이나 비가 도로 틈새에 스며 들었다가 추위로 얼면서 도로 표면에 고딩한 듯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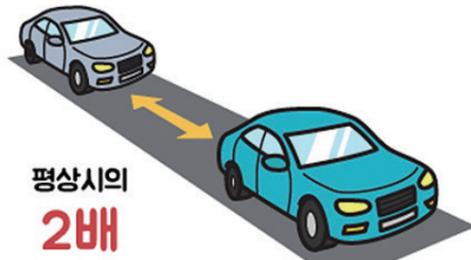


평소 도로보다 약 14배,  
눈길보다 약 6배 이상  
미끄러워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됨

## 블랙아이스 사고, 어떻게 예방하나요?

###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법을 알아보자!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운전하기



평상시의  
**2배**

규정속도보다  
**20~50%감속**



급출발 · 급가속 · 급제동 · 급회전  
삼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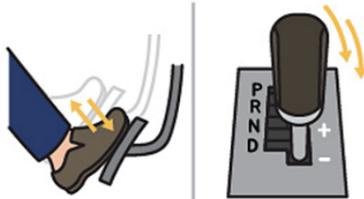


미끄러졌을 경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하기



\*운행속도 30km 이하일 때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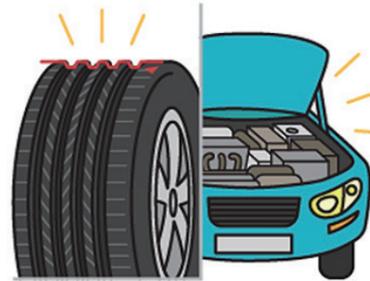
브레이크 밟을 때, 한번에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밟기



펌핑브레이크

엔진브레이크

타이어 마모 및 엔진 미리 점검하기



# 눈길 안전운전 요령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저속운행  
교량, 터널, 커브길 등 감속운행



평소보다 안전거리  
2배 이상 유지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 금지  
(부득이 차량에서 이탈시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두고 대피)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 자제  
휴게소 등 대기 후 운행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  
부동액, 배터리 등 이상유무 점검



• 교통정보(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

• 교통통제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



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4